

# 결혼 의례의 기호학적 분석

낭만적 사랑의 신화와 성 역할 이데올로기\*

김수아 · 이소연\*\*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사)

이 연구는 하나의 관습화된 제도로서 당연시되는 결혼식 의례를, 젠더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코드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텍스트로 간주하고, 한국의 결혼식 의례와 그 절차에 대한 신화 분석을 수행했다. 서구의 근대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인 낭만적 사랑의 신화와 함께 유교적 전통하에서의 한국적 기부장제 이데올로기는 현재 한국의 결혼 문화를 중층적으로 결정짓는 중요한 틀이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결혼식을 전시 영역과 비전시 영역으로 구분하고, 전시 영역의 서구적 사랑의 각본과 비전시 영역의 전통적 유교 이데올로기 각본을 분석하여 각 영역들이 젠더 관계를 어떻게 신화적으로 재구성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1980년대 들어 나타난 결혼식의 변형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신분 상승 욕구와 관련된 키치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젠더 불평등 관계를 은폐하는 신화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결혼식 의례, 신화 분석, 낭만적 사랑, 성 역할 이데올로기, 키치

## 1. 문제 제기

결혼에 대해 우리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보통 결혼은 ‘사랑의 완성’,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믿어진다. 많은 드라마나 영화는 결혼을 내러티브의 종결, 즉 서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우여곡절 끝에 도달하게 되는 완성의 지점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은 현실이라는 또

\* 논문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so094@snu.ac.kr/ abyss@kbs.co.kr

하나의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한 남성과 여성, 혹은 한 집안과 다른 집안 간의 현실적 조건들의 교환이 실제의 결혼이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대부분의 우리 사회 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혼이란 무엇인가? 문화적 현상으로서 결혼의 의미는, 초기의 성적 결합에 초점을 맞추던 의미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적으로 승인된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게 되었다(노길명·정태환·김용렬·서용석, 1998, 146쪽). 결혼이 사회적 현상임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결혼은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일종의 제도라는 사실이다. 이는, 현재의 결혼을 보편적이고 초역사적인 것,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특유의 역사, 사회적 배경과 연결 지어 고찰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결혼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 왔고, 지금의 결혼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신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결혼은 현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을 구성하는 시작 단계로서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 ‘현실’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결혼으로 시작되는 가정 생활의 현실성에 있다. 가족은 흔히 안정과 평화를 제공해주는 안식처라 말해지지만, 실제로 그곳이 권력과 지배, 불평 등의 공간이라는 주장이 이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공된 바 있다. 이렇게 볼 때, 현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특히 가부장적 가족 구성의 시작 단계로서의 결혼은 젠더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sup>1)</sup> 성 역할 분리를 전제로 만들어진 현재까지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구조, 즉 공적인 영역에서 남성의 참여가 여성의 참여에 비해 비대칭적으로 확대되어 있다는 점, 경제적으로도 남성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에게는 아직도 성적 행동에 대한 전통적 규제가 강하다는 점등은 남녀의 성, 사랑, 결혼의 인식을 다르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장필화, 1991, 43쪽).

1) 장필화(1991), 김경신·이선미(1998)의 연구는 성, 사랑, 결혼에 대한 남녀간의 인식 차이를 대화와 면접 방법을 통해 정리하고 젠더 차이에 따라 결혼 이데올로기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결혼에 대한 상이한 담론들이 존재하는 속에서, 실제의 결혼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혼은 젠더를 중심으로 한 투쟁의 장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여성들이 젠더간의 뿌리 깊은 불평등 관계에 결혼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편입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제도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결혼 의례가 사회적인 학문의 연구 대상이 된 일은 드물다(Tomaskovis-Devey, 2001).<sup>2)</sup>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이 글은, 결혼을 젠더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코드들을 담고 있는 중요한 사회적 텍스트로 파악하고, 결혼식을 중심으로 결혼식 의례와 그 절차에 대한 신화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의례는 일상적인 문화이면서 하나의 사회적 관습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나 결혼과 같은 의례들은 여성이나 남성, 예와 도덕에 관한 특정한 세계관을 통해 구축된 삶의 질서이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김현미, 2001, 163쪽). 따라서 결혼 의례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은 이와 같은 권력의 구조와 젠더 관계의 구축 과정에 대한 기술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2) 대중문화에서의 결혼식의 표상을 연구한 잉그래햄의 연구(Ingraham, 1999), 결혼 사진의 소비주의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분석한 루이스의 연구(Lewis, 1997), 레비스트로스의 논의에 기반하여 결혼식의 손을 건네는 행위를 분석한 벨의 연구(Bell, 1998) 등은 서구의 결혼 의례에 대한 연구들의 예이다. 이와는 달리 아시아권의 결혼 의례 연구는 전통과 근대의 혼합에 따른 변형과 문화적 특수성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골드슈타인-지도니의 연구(Goldstein-Gidoni, 2000, 2001) 및 한국의 결혼 관행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를 수행한 켄달의 저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Kendall, 1996).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 의례가 중요한 사회적 연구의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 2. 이론적 논의

### 1) 성, 사랑, 가족의 역사적 변화

조혜정(1991)은 결혼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시대의 도식—결혼은 연애(사랑)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부 관계는 배타적 성관계를 그 핵심으로 한다—이 아직까지 고수되고 있지만, 실제로 결혼과 사랑과 성은 엄밀히 별개의 영역이라고 하면서, 결혼/성/사랑의 삼각관계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을 행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봉건 사회에 접어들어서 사회의 기본 단위가 토지 공유와 친족 노동력, 그리고 신분 세습을 기반으로 한 확대 가족이 되고, 농업이 생산의 기초가 되면서, 결혼은 성과 짝지어져 출산을 가장 중요한 의의로 삼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은 일차적으로 훌륭한 자식을 얻기 위한 제도이면서 같은 신분을 가진 집단 사이의 계약이 되었고, 이 시대에 있어서는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이었다(조혜정, 1991). 즉, 낭만적 사랑은 초기에는 혼외의 사랑만을 가리켰다. 중세 시대의 결혼은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한 전략적인 것이며 토지 재산을 늘리는 수단의 하나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김영란, 2004, 202쪽; Duby, 1981, 1999).

그렇다면 낭만적 사랑이 결혼과 연결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기든스(1992)에 따르면, 낭만적 사랑의 개념과 결혼과의 연결은, 근대 사회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혼인 관계를 친족 관계에서 분리시켰고 결혼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근대적 의미의 핵가족과 가정이 탄생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변화하게 되었으며 모성의 근대적 구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복합체는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된 모델을 강화하게 된다(Giddens, 1992, 1995).

이처럼 낭만적 사랑의 결말로서의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서구적 근대의 산물이라면, 수입된 근대를 경험한 한국 사회의 결혼과 낭만적 사랑은 어떠한 변형을 거치며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한국의 경우, 낭만적 사

랑의 개념은 유학과 신지식인들에 의해 유입되었다. 자유연애의 이데올로기는 전근대의 구습을 타파하고 결혼이 가문간의 결합이 아닌 자유로운 개인간의 결합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연애에 기초한 근대화 초기의 결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과 그 실천의 양상은 유부남이나 유부녀와의 불륜에 의한 사회문제로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이배용, 1999). 결국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낭만적 사랑에 의한 결혼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고, 급속한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추진된 1960년대를 거쳐 1970년에 이르러서야 낭만적 사랑과 연애결혼이 현실세계에서 구체화되었다(이지연·신수진, 2004, 29쪽).

낭만적 사랑은 여성과 남성에게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성은 사랑에서 결혼 그리고 모성으로 이어져 가정 영역에서 그들의 사랑을 키워간다(김영란, 2004, 200쪽). 여성이 생식의 수단이 아니라 남성의 동등한 파트너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으로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보여지지만, 사랑으로 인해 여성은 과중한 감성 노동을 맡게 되고, 여성을 친밀한 관계로 유지하는 일에 과도하게 묶어둠으로써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이박혜경, 1998). 부부간의 애정이 도구화되어 남녀간의 권력 관계를 불균형하게 만드는 것이다(조혜정, 1986).

일반적으로 한국의 가족은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 자본주의화의 시대를 맞아 가정과 공공영역이 엄격하게 분리되고 여성이 가사노동 담당자로서 구조화되는 과정에서 핵가족화를 이루었다고 말해진다. 그리하여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는 부부 중심 관계가 대두되고 가족은 부부와 자녀의 정서적 결합의 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신수진, 2002). 그러나 한국의 핵가족화는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 식민지 시기로부터 수입된 근대와 핵가족의 개념을 받아들인 한국 사회에서의 핵가족은 유교적 부계 계승성과 서구적(혹은 일본적) 부부 중심성이 공존하는 매우 모순적이고 중층적인 가족 개념으로서 발전했기 때문이다(김혜경·정진성, 2001). 결국 부부 중심 가족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가 된다(장현섭, 1993). 한국의 부부 관계는 부계 친족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부부를 중심으로 한

핵가족이 장자 가족일 경우 그 부모 가족은 장자 가족과 분거하고 있을 뿐 한가족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신수진, 2002; 장현섭, 1993). 그러므로 한국의 부부 중심 가족은 여성에게 낭만적 사랑과 연결된 감성 노동뿐 아니라, 이전의 전통적 가족 제도에서 요구하는 감성 노동 역시 부과하는 복합적 구조를 띠게 된다. 따라서 서구적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는 한국의 핵가족 아닌 핵가족제도와 맞물리게 되면서 기든스(1992)가 논의하는 바의 성별 권력관계와 공모하지 않는 사랑으로서가 아니라, 성과 결혼의 연결이 사랑으로 매개되어 이성애 중심적인 일부일처제의 여성 억압성을 미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박혜경, 1996, 91쪽).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결혼과 가족의 형태, 결혼과 사랑과의 연관 관계 등이 인류 역사의 고유한 것으로 변할 수 없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의 사회·문화·경제적 조건들과 맞물리면서 변모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서구의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화적 혼종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 구조의 변동 과정 속에 여성의 지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결혼과 사랑 이데올로기의 연결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젠더 불평등의 장으로서의 가족

현 사회에서 결혼이 모든 사람이 당연히 거쳐가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면에는, “모든 인간은 가족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관문이라는 것인데, 실제로 결혼으로 성립되는 현재의 일부일처제 가족이 여러 가지 모순과 억압들, 특히 젠더 불평등과 관련된 모순을 담지하고 있는 공간이라는 분석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출된 바 있다(이재경, 1995; 조혜정, 1986, 1988; 하주영, 2002; 함인희, 2000; Barrett & McIntoch, 1982; Gittins, 1993; Thorne & Marilyn,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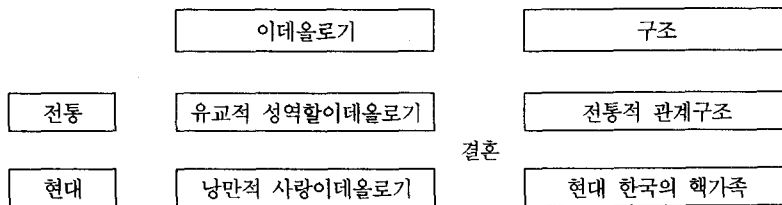
조혜정은 현대적 가족의 성립에 서구에서 수입된 낭만적 사랑과 그 결실

로서의 행복한 가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결혼과 남녀간의 사랑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사랑의 결실인 가정은 영원하게 되는데, 이 가정의 영원성을 위해서는 성별 분업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조혜정, 1988).

결국 가족은 성별 분업과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보살핌 노동, 즉 자녀와 남편에 대한 헌신과 애정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지만 사실은 부활 노동이다. 또한 여성은 남성-생계 부양자에 물질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가족임금이라고 지칭되는 성별에 따른 차별임금 부여 관행에 의해 강화되며 여성의 공적인 보살핌 노동—육아, 간호, 간호사 등—은 남성 노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에 처해 있다(김영란, 2004). 결국 여성이 가족제도하에서 물질적으로 또한 이데올로기적으로 억압되어 있으므로 가족은 ‘남성의 여성 지배’라는 가부장제의 원리가 실현되는 공간이자, 이를 사랑, 행복, 모성 등의 이름으로 은폐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토대로 하여, 결혼을 둘러싼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결혼의 이데올로기와 구조



전통적인 부분<sup>3)</sup>과 현대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결혼을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조선조 후기(17세기) 이후로의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내외법을 비롯한 유교적 가치들은 공사 영역의 남녀 구분을 일상생활에 확장시켰으며, 사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가정 내부로 할당되었다(장필화, 1996; 조혜정, 1986).<sup>4)</sup> 이러한 유교문화에서 비롯한 전통적인 가치들이 온존하는 가운데, 근대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가치들이 추가되어 현재의 결혼을 성립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낭만적 사랑 이데올로기나 현대 핵가족이 서구의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집단주의 사회이며,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의 관계맺음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고, 자식들의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가 강력한 권리를 행사한다. 즉, 한국적 상황에서 낭만적 사랑이란, 서구에서 볼 수 있는 물질 토대가 결여되어 있는 피상적인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결혼으로 구성하게 되는 현대적 핵가족도 한국과 서구는 다른데, 한국에서는 개개인의 집합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으로서의 가족으로 그 결속력이 남다르며, 가족 내의 위계화도 서구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역사적,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결혼을 파악해야만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 
- 3) 이 시점에서 전통의 범위와 성격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박혜인(1991)은 전통혼례를 논할 때 그 전통의 시점을 유교적 가부장제가 확립된 17세기 이후로 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의 전통혼례의 양식은 유교적 요소만이 아니라 고유문화의 요소 역시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현대적 혼인 예식에서의 '전통적 양식'들은 유교적 혼례 의식의 성립 이후의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17세기 이후의 유교적 혼례 의식의 잔재들을 전통적 요소로 파악하여 살피고자 한다.
- 4) 조혜정(1986)은 이러한 여성의 사적 영역에의 할당이 비공식적 차원에서는 자궁 가족이라는 양태로서 여성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보고 이를 한국 가부장제 변형의 특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부과된 권력이 사회적 권력이 되거나 여권의 신장에 기여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 3. 연구방법과 분석틀

#### 1) 기호학과 신화 분석

기호학은 텍스트가 어떻게 특정한 기초 체계 속의 기호와 코드들을 재구축하여 구조화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구조가 어떻게 신화와 함축 의미들을 형성해 내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시작된 것이다(박명진, 1989b, 63쪽). 전기 구조주의 기호학의 특징은 의미 체계와 상징 체계의 연구를 사회학적인 연구의 중요 관심사로 부각시켰다는 것에 있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영역뿐 아니라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을 기호로 구성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명진, 1989a, 40쪽).

이러한 관점에서 바르트의 『신화론』은 외시 의미와 함축 의미라는 의미 작용의 단계를 통해 현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고 있다. 바르트는 기표와 기의는 상호 결합하여 기호를 형성하며 이 기호에 의해 단순하고 1차적인 의미가 생산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시 보다 정교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틀지워진 2차적 의미를 생산하게 된다고 제시하는데 이 단계가 바로 신화의 단계이다. 여기서 1차적인 의미를 생산하는 것을 외시 의미라고 했는데 이는 특정 텍스트의 언어들인 어떤 대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외연적, 명시적 의미를 뜻하며, 함축 의미란 외시 의미에 암시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특수한 사회적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Barthes, 1972, 1995).

피스크(1985, 1997)는 신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역사를 자연의 산물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화는 지배적인 관점에 입각해 역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만 이러한 역사성이 부정되면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로 제시되는 과정이 신화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기호는 신화와 함축된 의미와 가치들에 구체적인 형태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신화와 가치를 지원하고 유포시키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따라 피스크와 하틀리(1978, 1994)는 한 문화의 함축 의미와 신화가 그 문화의 이데올로기들을 표현하는 명백한 기호라고 보고 있다. 다양한 함축 의미와 신화들이 응집된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면서 의미를 창출하는 방식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증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호학의 분석 영역은 단순한 미디어 텍스트를 넘어서 다양한 공간 분석과 의례 분석등의 체험적 텍스트로도 확장되고 있다(박명진, 1995). 이러한 관점에서 가티너(Gottdiener, 1995)는 사회기호학의 맥락에서 의미는 일상생활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며 기호가 사회적 상징작용의 매개를 구성한다고 본다. 즉, 일상생활의 경험들, 물질적인 세계의 영역들이 기호학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2) 연구의 분석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결혼 절차가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공간적으로는 서구와 우리 전통의 관습이 혼재되고 중첩되어 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 연구의 분석틀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결혼을 위한 절차는 크게 혼담 → 함 → 결혼식 → 폐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야외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혼담이나 함, 폐백은 결혼 당사자의 집안간의 관계와 관련되는 다소 ‘사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영역에서도 함과 예단의 내용물이 과시적이고 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시성의 영역이 친족관계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결혼식 자체에 비해서는 비전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반면, 결혼식은 ‘보이기 위한’ 전시적 목적을 강하게 가지는 절차이다. 결혼식이 가지는 전시성과 공개성으로 인해, 결혼식에는 결혼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 사회적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갈홍·이영준, 1993, 226쪽).

그런데 우리나라의 결혼식 과정에서 전시성/비전시성의 영역은 또한 동시에 시간적인 구분 — 과거/현재 — 과 공간적인 구분 — 전통/서구 — 에 조응한다. 때문에 두 영역은 결혼에 대한 상이한 각본들에 기초하고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의미들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전시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함 받기, 폐백의 과정 등은 전통적인 혼례에서 그 형식이 전수되어 온 것이다. 전통혼례의 과정은 봉건 사회의 사랑의 각본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혼과 사랑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전시적 영역의 서구적 결혼식 절차는, 서구의 기독교적 제의의 성격을 가진 결혼 의례의 형식을 ‘수입’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다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전시적 영역의 결혼식 절차와 비전시적 영역의 결혼식 절차는 담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표현 양식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식을 둘러싼 절차를 크게 ‘보이기 위한’ 전시적 영역과 사적 관계에 국한되는 비전시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했고, 전시적 영역이 차용한 서구식 절차와, 비전시적 영역에서의 전통적 절차에 최근 들어 변형되고 첨가된 변형된 부분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 3) 연구 대상

신식 결혼식의 순서는, 개식-주례 입장-신랑 입장-신부 입장-신랑신부 맞절-서약-예물 교환-성혼 선언-주례사-양가대표 인사-신랑신부 인사-신랑신부 퇴장-기념촬영 및 피로연-폐백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 순서는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된 이래 준수되고 있는 결혼식 절차와 같은 것으로, 1990년대 이래로 예식장 결혼의 예식 순서는 현대적 변형의 몇몇 양상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하다(강선미, 1999 ; 송도영, 1995, 328쪽). 분석에서는 표준으로서의 가정의례준칙이 정리한 순서를 참고로 하고, 구체적인 의례의 절차 분석은 예식장의 결혼 예식 참여 관찰을 통해 정리했다.<sup>5)</sup> 야외 촬영

사진의 경우, 웨딩 정보 사이트 중 페이지뷰에서 1위를 차지하는 웨딩프렌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결혼사진 전문 스튜디오의 홈페이지에 소개된 사진들과 3인의 아의 촬영 비디오를 대여하여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sup>6)</sup>

#### 4. 결혼식의 전시적 영역 : 결혼에 대한 현대의/서구적 각본

##### 1) 서구적 결혼식 의례의 겉모습

결혼식은 ‘일생에 한 번 있는 날’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낭만적 사랑의 이상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고 그 결합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상들을 결혼식장의 분위기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예컨대 신부의 웨딩 드레스나 결혼식장 자체의 분위기, 즉 얼음조각물, 꽃장식, 정장이나 한복을 입고 등장하는 하객들, 화려하게 장식된 의자들, 샹들리에 조명등의 장치들을 통해 전체적으로 현실이 아닌,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현대 결혼식장의 풍경이다. 사랑이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벗어나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장소이므로 결혼식장은 현실의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사랑은 현실을 초월하여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혼식장의 모습을 보면, 우선 주례인 앞 강단은 흰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신랑의 결혼식 의상의 색깔이나 모양에 있어 특별히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신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흰 꽃으로 되어 있는 부케를 드는 것이 관행

---

5) 1999년 11월 서울대학교 호암생활관 예식홀의 주말 예식을 관찰했으며, 2004년 10월과 11월 보완적으로 방송회관 예식홀과 청기와 예식장의 주말 예식을 관찰 정리했다.

6) 분석대상이 된 사진은 청담스튜디오, 갤러리스튜디오, 청스튜디오, 흥스튜디오, 스튜디오타임, PCM 스튜디오, 한사랑 스튜디오, W스튜디오 등의 홈페이지 갤러리에 전시된 170장의 아의 촬영 사진이다. 아의 촬영 비디오의 경우 1995년에 결혼한 여성(34세), 2001년에 결혼한 여성(30세), 2003년에 결혼한 여성(26세)의 소장용 비디오이다.

이다. 식장의 중앙 통로는 ‘버진 로드(Virgin road)’, 꽃길 등으로 불린다. 버진 로드에는 흰 천이나 융단을 깔고 좌우 각 의자 측면에는 흰색 꽃뭉치로 장식된다(임택진, 1991, 37~38쪽).

## 2) 신성한 제의로서의 결혼

결혼식 풍경 전반을 지배하는 색깔은 흰색이다. 이는 결혼식에 감도는 비세속적인, 성스러운 분위기를 창출해 낸다. 요컨대,

결혼 = 흰색 = 신성함 / 탈세속

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들의 부재하는 반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결혼의 세속성이다. 사람들은 결혼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결혼은 조건이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이고, 여성은 결혼을 통해 많은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등식은 결혼은 현실적이고 세속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결혼식 풍경에서 중심적인 하나의 이항 대립항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세속) : 신성함

따라서 결혼식에 쓰이는 흰색은 세속과 대비되는 탈세속의 의미를 담아 내면서, 결혼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속성을 씻어내는 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결혼식이 하나의 상징적인 제의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 7) 버진 로드엔 신부 이외의 사람이 걸으면 부정을 탄다는 속설은 결혼식의 상징들이 정화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서구식 결혼식은 기독교와 밀접하게 결합된 형태를 취해 온 것으로, 주례나 주례단의 존재는 결혼을 신에게 보고하면서 신의 축복을 빌어주던 교회적인 상징의 외형과 매우 유사하다. 또한 주례단에 켜는 촛불도 제의적 의미가 있다. 제단 앞에 바쳐지는 촛불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면서 세상을 정화하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이다. 결혼이라는 제단 앞에 바쳐지는 촛불은 이 결혼을 신성하게 하면서 동시에 신랑 신부의 사랑을 성스럽게 만든다.

<그림 2> 서구적 결혼식 의례의 신화 구성

이차 기표		이차 기의: 제의로서의 결혼	신화: 결혼의 세속성 정화

### 3) 결혼식의 이데올로기적 변형과 강화

이상의 신화에 의해 자연화된 성스러운 제의인 결혼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 측면이 지속적으로 의례 과정에서 표출되는 모습을 보인다. 사실상 결혼이 전제하고 있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들은 가부장제 하의 가족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한국의 가족제도가 외형상 핵가족이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제적 부계 중심성을 잔존시키고 있다는 점과 조응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결혼에서 시댁과 처가 간의 관계란 동맹 관계였고, 집단과 집단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8)</sup> 그러나 이 결합 관계는 결코 동등한 것은

8) 예컨대 결혼식의 처음에, 주례가 입장한 이후 양가의 어머니들이 입장하는 순서가 있다. 이때 한복을 입은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입장하여 이제 가문과 가문 간의 결합이 맺어지게 된 것을 예시한다. 결혼이 개인 대 개인의 관계맺음이 아

아니었는데, 유교적 규범이 강화된 17세기 이후로 여성은 시집의 사람이 되지만 남성은 처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박혜인, 1991). 이러한 전통적인 관계는 낭만적 사랑의 분위기로 포장된 현대의 결혼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결혼식 전에 신랑과 신랑측과 신부측의 가족은 결혼식장 앞에서 손님들을 맞는다.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 있으며, 본식의 신부 입장 순서 전에는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혼을 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지만, 정작 신부는 결혼식의 주인 자리에 없다. 이는 결혼식의 주인으로서 신랑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신부 자체를 신비화, 물신화하는 의미가 있다. 신부는 식을 주도하는 주체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교환의 대상이면서 신비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대상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공적 존재로서의 남성과 사적 존재로서의 여성을 가르는 이분법적인 젠더에 대한 통념과도 연관이 된다. ‘드러내지 않음’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여성의 미덕으로 칭송되어 왔으며, 남성은 항상 공적 존재로서, 여성은 항상 사적 존재로서 인식되어 왔고, 이는 가사 노동을 일방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강요하는 문화나 여성의 공적 영역의 참여를 막는 사회분위기로 직결된다.

신랑 입장과 신부 입장 순서는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신랑은 보통의 걸음걸이로 입장하지만, 신부는 아버지(혹은 가부장적 위치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천천히 입장하게 되며 웨딩마치라고 하여 반주가 있다. 송도영(1995)은 이러한 신부 입장 순서는 왕녀의 행진을

---

나라 집단 대 집단의 관계맺음이며, 집합적, 사회적 행위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결혼식에 주로 참여하는 하객 역시 신랑 신부 자신의 하객이라기보다는 부모대의 하객이라는 점 역시 이를 예증한다. 하객들은 결혼식의 신랑 신부를 축하한다는 본래적 의미로도 모이지만 부모의 사회적 연결망을 과시하고 상호부조의 관계를 확장하는 자리로서 모이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아버지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혼인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받아들여진다(안정남, 1991).

연상시키는 키치적 요소로서, 개인들의 자기 연출과 향연의 연극적 순간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는 집안 손님들인 하객들 앞에서 한 가문의 가장이 새로운 가문을 이루는 남성 가장에게 여성을 건네는 의식이며, 여기서 공개되지 않던 신부는 비로소 주목을 받지만 이 주목은 신비하고 성스러운 물신의 대상에 대한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한편 결혼식장에 입장한 신랑과 신부에게 주례자는 혼인의 성립에 관하여 질문한다. 이러한 성혼 선언에서 주목할 것은 신랑에게 묻는 질문과 신부에게 묻는 질문이 다르다는 것이다. 신랑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며 신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랑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이다. ‘아끼며’라는 말은 그 주체에게 그 객체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며, ‘존경하며’라는 말은 이 단어의 주체에게 객체보다 더 열등한 지위를 부여한다. 따라서 신랑은 신부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나타나고, 이 관계는 ‘평생 동안’ ‘변함없는’ 신랑 신부의 관계로 표현된다.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남성과 여성이 모두 현존의 사회 질서—가부장적인 남성 우위의 사회 질서—에 순응하고 그 사회의 충성된 구성원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는 셈이다. 결혼은 이러한 지배적 사회 질서의 확증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주례의 축사가 끝나고 나서 신랑 신부는 내빈과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순서를 갖는다. 이때가 유일하게 신부 측의 순서가 먼저 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나 신부 측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댁-처가의 전통적인 관계가 드디어 결정이 났다는 신호이다. “신부를 데려간다”는 의미에서의 결혼식이므로, 이제까지 신부를 키운 처가 부모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은 ‘출가’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축혼 행진곡과 함께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순서에서 남성은 정면을 바로 보고 씩씩하게 걸어 나갈 것을, 신부는 남성의 팔에 자신의 손을 끼우고 발을 맞추어 걸어나갈 것을 요구받는다. 혼자서 입장하지 못했던 신부는 퇴장할 때 역시 과도한 치장을 한 웨딩 드레스 때문에 혼자서는 제대로 걸어나갈 수가 없다. 사랑의 완성된 순간에 입는 웨딩 드레스는 혼자



결을 수 없는 의상이며, 결혼에 의하여 한 남자의 남편이 되고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된 여성은 더 이상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것이다.

결국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결혼식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완성하는 의미로서의 결혼의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때 드러나는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은 서구의 핵가족 형태가 아니라, 과거의 대가족 형태에 가깝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신랑(남성) 대 신부(여성) 사이의 불평등 관계만이 아니라, 처가/시가와와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장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서구로부터 수입된 근대적 낭만적 사랑의 각본과 우리의 현실적 토대 사이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개인주의화를 배경으로 하고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전제하면서 탄생한 서구의 낭만적 사랑의 토대와,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계와 집단주의는 다른 것이다. 결혼식은 이 모든 것들이 혼합되는 불균질한 모순의 공간으로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 5. 결혼식의 비전시적 영역: 결혼에 대한 과거의/전통적 각본

### 1) 함

함에 넣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① 혼서, ② 채단 및 패물(혼수), ③ 기원의 의미를 담은 복주머니에 담은 상징물(팥, 콩, 목화, 고추)이다. 팥과 콩은 자식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고, 목화는 반드시 씨가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명을 길게 하라는 의미가 있다. 고추는 아들을 낳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전통적인 남아 선호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결혼이 신부에게 지우는 의무에 대해서 알려준다. 즉, 신부는 자손을 낳아야 하는 사람이며(팥과 콩), 특히 대를 이을 아들(고추)을 낳아야 한다(배영기·손남숙, 1995).

납폐란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예물을 보내는 의식을 가리킨다. 이 예물

을 통해 혼인이 성사되었음을 확실히 한다. 여기서 예물은 일종의 신부값 (bride-price)이라고 할 수 있다. 혼례의 전통에서 보면,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신부값을 지불함으로써 신랑은 신부와 결혼하는 권리 및 신부가 낳은 아이에 대한 권리를 허락받게 된다고 한다. 예물의 교환은 한 집안과 한 집안 간의 결혼이 성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두 집단 간의 연대가 매개물로서의 '여성'의 교환에 의해 확실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sup>9)</sup>

또한 이러한 예물의 교환은, 시가 위주적인 부계 중심성 가족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신랑의 예물은 신부에 한하지만, 신부는 신랑 한 사람에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가문의 친족에게 두루 걸쳐야 하며 이러한 예물과 예단의 금액과 종류는 공공연한 거래와 시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불균형성으로 인해 비전시적 영역의 결혼 의례는 처가에 딸 가진 설움을 자극하며 경제적, 정서적 약화와 상실감을 경험하게 만든다(안정남, 1991).

## 2) 폐백

폐백은 전통혼례 행사 중에서 그 형태가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결혼식 행사 중의 하나이다.<sup>10)</sup> 폐백은 원래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가로 가는 신행에서 신부가 시댁에 해운 음식으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는 예식을 의미했다. 현대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시가에 들어가든 가지 않은 간에 결혼

9) 레비스트로스는, 결혼이 선물 교환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교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때 보내는 혼수, 함, 예물과 같은 상호 선물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Levi-Strauss, 1969).

10) 켄달(1996)은 폐백이 서울올림픽 이후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 한국의 전통 관습들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채택되어 굳어졌다고 분석한다. 이 외에도 전통혼례의 많은 양상 중 폐백이 현재의 변형된 형태로 남은 것에 대한 다른 분석이 가능할 것인데 이 연구는 이러한 통시적 관점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식이 끝나면 결혼식장에 마련된 폐백장에서 폐백을 드리는 것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한 여성이 시댁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것을 신고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는바, 폐백은 신랑 측 가족만이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sup>11)</sup> 이처럼 결혼식 과정 전반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결혼식은 신부가 시댁으로 들어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폐백의 자리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리, 현재의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이 한 남성의 아내,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보다 공고하게 위치지어지는 의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sup>12)</sup>

비전시적 영역에 속하는 전통 혼례의 결혼 절차들은 흔히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할 때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드러낸다. 결혼에 있어서 여성 측(친가)과 남성 측(시댁)의 위치가 위계적으로 다르며,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가 며느리에게 강요되고, 뿌리 깊은 아들 선호사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절차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함은 신부값을 함의하고, 함에 넣는 콩과 팥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함의이다. 폐백은 시댁 식구들에 대한 신고식이고, 대추를 던지는 것은 아들을 낳으라는 뜻이다. 가부장적, 남아 선호 이데올로기는 비전시적 영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과거와 전통의 영역이어서, 결혼에 대한 전통적/봉건적 각본에 기대고 있다. 결혼에 대한 과거/전통의 각본은 결혼과 낭만적 사랑을 연결짓지 않는다. 결혼과 출산의 도구로서의 성이 짝지어지는 각본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수입된 서구의 근대적 모델에서 나타나는 ‘왜곡’의 필요성이

11) 비록 최근에 들어서는 신부 측 부모님들이 폐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이는 시댁이 처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처가 부모님께 절 한번 드리라”고 권유할 때에나 가능한 것이다.

12) 폐백의 구체적인 절차는, 신랑과 신부가 큰절을 4배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에는 2배가 보편화되어 있고, 신랑의 술을 신부가 들고 있는 잔에 따르면, 폐백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잔을 웃어른들에게 권하고 그 술을 마시고 나서 덕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부모의 경우는 밤과 대추를 신랑 신부에게 던져주는 순서를 갖게 된다. 밤은 딸을, 대추는 아들을 의미한다고 하며 이때 던지는 밤과 대추를 신부가 절할 때 쓰는 수건에 받는 것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다.

결여된다.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적 성 역할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재현할 따름이다.

## 6. 현대의 변형된 결혼의 각본과 그 신화

### 1) 변형된 결혼의 각본

부르주아의 등장과 기독교라는 중요한 이념적 배경 없이 도입된 서구식 결혼식 절차는, 도입시부터 필연적으로 변형을 일으키게 된다.<sup>13)</sup> 1980년대 후반 이후로 한국의 결혼식에는 눈에 띄는 결혼식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야외 촬영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형된 결혼식 관행들은 대체로 1990년대 이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그 기원과 시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며 민간적으로 발생하여 널리 퍼지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강선미, 1999, 43쪽). 이 외에도, 결혼식의 처음에 양가 혼주가 동시 입장하여 촛불을 켜는 장면, 신부가 꽃마차를 타고 버진 로드 앞에 도착하는 것, 신랑 신부 결혼 행진시 비누방울이 날리거나 꽃가루가 날리도록 하는 것, 폐백시 신랑 신부가 서로 마주앉아 신랑이 신부의 입에 대추를 물려주고 이 대추를 받아먹는 것, 그리고 폐백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를 업고

---

13) 예컨대 주례의 경우가 그러하다. 주례란 원래 예식을 주관하는 의미로, 서구의 경우 주례의 자격은 성직자나 시장 혹은 판사 등과 같은 관료들에게 주어진다. 주례를 성직자가 서는 경우라면, 이는 종교적 배경을 가진 것으로 결혼의 기원을 아담과 이브에게서 찾는, 그리하여 결혼이란 신 앞에서의 결혼으로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직자를 통해 이 의식이 신 앞에 드러지고 거룩해지는 의미를 갖게 된다. 시장, 판사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절차로서 계약적인 의미가 강하다. 이 두 사람이 합법적으로 혼인하여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례는 신랑 측에서 청한 유명 인사인 경우가 많다. 종교성을 기반으로 결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바퀴 도는 행사 등은 사진사들에 의해 고안된 행사들이라고 한다(갈홍·이영준, 1993). 또한 축가(축주)의 순서도 새로이 첨가된 요소들이다.

이러한 변형된 각본들은 한국의 결혼 의례가 서구와 전통을 혼합한 형태여서 ‘원전 없음’으로 인해 가능한 것들이다. 이러한 변형의 양상들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다. 강선미(1999)는 양가 혼주(어머니)가 입장하여 촛불을 켜는 것을 여권 신장의 결과로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구적 의례의 수입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적 변주일 수도 있다. 제의로서의 결혼을 구성하는 정화의 의미로서의 점축 의식은 서구적 의미에서는 의례를 담당하는 주례자가 담당할 일이다. 그러나 종교적 의례로서의 의미가 약한 한국의 결혼식에서(김주희, 2003) 제의로서의 결혼을 모방하기 위한 촛불 의식을 거행해야 할 유일한 행위자는 어머니들<sup>14)</sup>인 것이다. 축가(축주) 순서 역시 언제부터 정확하게 결혼식의 절차로 여겨지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현재 결혼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서로 여겨져 지인이 아닌 전문 연주자들을 고용하는 일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축가는 낭만적 사랑의 확증과 관련이 깊다고 할 것인데, 축가로 채택되는 노래나 연주곡들은 사랑의 완성과 기쁨에 관련된 것들로서 신랑 신부의 사랑과 그 완성을 축하한다는 의미라 볼 수 있다.

한편 폐백에서의 현대적 변주는 더욱 흥미로운데, 폐백은 실제로는 가부장제적 의례의 장소이며 엄밀히 말해서는 신랑의 친족원에게만 공개되는 유교적·전통적 가족제도의 완성의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에 신랑과 신부의 낭만적 사랑의 표현이 개입하는 것은 상기한 낭만적 사랑의 완성으로서의 결혼에 대한 신화들이 변형된 형태로 깊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축가나 폐백에서의 현대적 변형의 양상들은 점차로 대가족제도가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14) 신랑과 신부는 예식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신부의 아버지는 신부를 ‘건내야’ 하기 때문에 양가의 아버지가 이 임무를 맡을 수는 없다. 가문의 결합을 위한 전 시적 행사를 한 가문만 담당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 2) 문화적 혼종성과 차이 표시로서의 키치성

결혼식의 환상은 일차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왕자와 공주가 되는 데에서 온다. 이것이 이전에는 결혼식장의 장식과 의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결혼식이라는 하나의 이벤트 과정에 왕자와 공주의 결합을 더욱 환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장치들을 곳곳에 배치시키고 있다.

그 목적이 상업주의에 있다는 것은 물론 말할 나위가 없다. 이렇게 변형된 양식들이 사진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형들이 하나의 소비 형태를 지향할 때, 이 소비 형태를 키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도영(1995, 338~339쪽)은 예식장의 공간 경험은 결혼 당사자들이 일상 공간이 아닌 예식장이라는 전문화된, 또한 건축학적으로 유럽의 성이나 고급 주택을 모방한 장소에서 온갖 전통 문화와 외래문화의 가치재들을 임의적으로 조합한 키치의 형태라고 말한다. 즉, 예식장의 공간은 서양의 귀족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등 전통적이며 귀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그 역사적 맥락에서 떼어내어 감정적 이입과 자아도취, 타인에 대한 과시의 욕구를 충족시킨 산업사회적 소비품목의 하나라는 것이다(송도영, 1995, 345쪽).

이때, 키치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한가지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쁜 취향이라는 부정적 관점에서부터 현대 사회의 미적 양태의 한가지라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Calinescu, 1987; Moles, 1994; 김소연, 1994).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키치란 어떤 미적인 원형을 그 형태나 분위기만을 차용하여 나타내는 양식이라는 것이다(Moles, 1994).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신랑 신부의 입장시 통과하도록 만들어진 아치 형태의 입구는 옛 성의 성문을 모방한 것이고, 신부가 타고 나타난다는 꽃마차는 왕족의 것임을 표현하고 있으며, 드라이 아이스나 비누방울, 꽃가루 등은 왕국의 축제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야외 촬영은 왕자와 공주의 결합을 영원히 남겨주는 기록의 역할을 한다. 키치의 양식들은 신랑 신부의 사랑

을 영원하면서도 또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키치의 소비를 통해 신랑 신부는 상징적으로나마 왕자와 공주가 된다. 이는 폐백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폐백시의 의상은 전통혼례의 의상으로서 신부는 원삼과 족두리, 활옷과 화관을 착용하고 신랑은 관복과 사모를 사용하는데(이순자, 1995) 이 의상은 유교적 사회에서 출세한 관직의 복장과 왕녀의 대례복을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신분 상승의 이미지를 모방한 키치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결혼식은 적극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순간이며(Charles, 1997) 자신의 신분을 포장하여 드러내고 연출하는 공간인 것이다.

원래 고급 예술품은 차이 표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 절대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키치는 아주 빈약한 차이 표시 기능을 갖지만 누구든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키치를 소비하면서 그 이익을 누리게 된다(Baudrillard, 1970, 1991, 156쪽). 결혼식의 키치성은 이러한 차이 표시의 기능을 한다. 그 기능은 사실 너무나 빈약한 것이다. 공주의 의상을 입고 해서, 공주가 타는 마차를 탄다고 해서 진짜 공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물을 통해 결혼식은 왕자와 공주의 결합으로 표현되고 신랑과 신부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된다.<sup>15)</sup>

키치는 이러한 차이 표시 기능을 통해 사람들에게 — 비록 싸구려일 수 있지만 — 미적 경험을 가져다 준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몰르의 경우 키치를 행복의 기술로 표현한다(Moles, 1995, 288쪽). 키치는 고급 예술이 아니지만 가장 널리 퍼진 미적 양태이고, 이를 소비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차이 표시 기능이 주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결혼식의 키치성을 신랑 신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한다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하겠다.

15) 최근 들어 하객 대여업체까지 발생한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객 수는 집안의 세력에 대한 과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지만 또한 왕자 공주의 결혼식은 전 왕국의 행사로서 하객이 적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3) 낭만적 사랑의 확인으로서의 키치

이러한 결혼의 키치성은 한편으로, 젠더 차원에서의 결혼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왕자와 공주의 결합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대해온 내러티브의 완성이며 평형 상태이다.<sup>16)</sup> 왕자와 공주는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다. 그 결혼은 축복받을 만한 것이고 이제까지의 모든 모순과 불평등, 괴로움을 상징적인 차원에서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내러티브는 결혼 사진이나 야외 촬영 비디오를 통해 영원히 남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의 완성으로 인해 결혼제도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감추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철저히 역사가 사라진다. 일부일처혼이라는 것 역시 역사적 사건이며, 결혼과 사랑의 형태가 결합되는 것도 역시 역사적 현상이고, 현재의 가부장제 사회 또한 역사적인 현상이다. 또한 작게 보면, 신랑과 신부의 역사도 있다. 그 두 사람이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림 3> 변형된 결혼식의 각본과 그 신화

이차기표		이차 기의: 왕자와 공주의 결혼	신화: 내러티브의 완성/ 역사성의 탈각
일차 기표: 드레스를 입은 신부/ 택시도를 입은 신랑 예식장의 장식/분위기	일차 기의: 잘 어울리는 한 쌍 아름다운 결혼식장		

16) 프로프의 기능 목록에 따르면, 주인공이 (공주와) 결혼하여 왕좌에 오르는 것이 모든 신화와 민담의 기능 목록의 마지막 목록이다(Hansen, A. Cottle, S. Negrine, R. & Newbold, C., 1998).



그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혼식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다만 이 두 사람은 현재 사랑하고 있으며, 이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이 순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르트(Barthes, 1972, 1995)의 논의에서 드러나듯이 신화를 만들기 위해 역사성을 탈각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심리적 안정을 누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

#### 4) 야외 촬영/스튜디오 촬영 사진의 분석

결혼식 이전의 야외 촬영 사진이 단지 사진사 개인의 작품만은 아니다. 사진사는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익혀온 사진의 코드들을 조합하여 작품을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결혼, 또는 결혼 사진에 관한 사회적, 문화적 코드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다. 왜 대부분의 야외 촬영 사진은 그토록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야외 촬영 사진은, 신랑 신부의 행복한 현재와 행복한 미래를 그려낸다. 야외 촬영은 두 사람의 사랑의 과정, 사랑의 결실, 그리고 행복한 미래에 대한 서사적 표현이다.<sup>17)</sup> 남성은 여성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이에 사랑이 시작되었고, 남성은 여성에게 다가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획득했다.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두 사람은 함께 그 미래를 꿈꾼다. 이러한 사랑의 각본은 대개의 로맨스 소설이나 영화의 구조를 차용한 것이며, 이 야외 촬영의 시나리오는 신랑 신부의 사랑의 모습을 이상화시킨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는 언제나 해피엔딩이다. 이와 같은 야외 촬영 사진은 보통 액자에 들어가 그들이 살게 되는 집의 거실, 혹은 침실의 중앙에 '전시된다'. 사랑하는 순간은 사진을 통해 영원하게 남는다. 낭만적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의 감정이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17) 이 서사적 표현들이 두 사람의 실제의 사랑의 과정을 담고 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매혼인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포즈로 사진사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한다. 이 행복이란 어떠한 종류의 행복인가? 야외 촬영에서 드러나는 젠더를 중심으로 모아지는 이항 대립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야외 촬영 비디오/사진에 나타난 젠더 이항대립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신랑	신부		동적	정적
가리킨다	가리키는 곳을 본다		능동	수동
다가간다	기다린다	--->	주체	객체
키스한다	키스를 받는다		강함	약함
본다	보여진다		보호자	피보호자
들어올린다	들어올려진다		남성성	여성성
안는다	안긴다			
위에 위치함	아래에 위치함			

결국 사진에서 제시되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사진에서 신부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모습으로 객체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결혼, 그리고 결혼으로 성립되는 가족이라는 공간이 성별 구분과 그에 따른 차별을 충실하게 행하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신화는 그들의 야외 촬영의 배경인 자연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갈홍·이영준(1993, 239~242쪽)은 야외 촬영의 자연배경이 탈세속성과 처녀성을 함의한다고 보았다. 세속적 행위로서의 결혼은 비세속적인 이미지를 통해 정화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화의 기표가 자연 배경이 되는 것이며, 처녀성을 정복하는 남성의 신화를 담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외 촬영의 배경으로 자연을 선택하고 여성과 자연이 동일시되는 과정은 이러한 처녀성과 정화의 기표로서 작동하는 자연의 신화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4> 야외 촬영 이미지의 신화 구조

이차 기표		이차 기의: 남녀간의 낭만적 사랑	신화: 젠더 통념 : 처녀성의 신화 : 결혼의 세속성 탈각

최근 들어서는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이름 하에 자연이나 고궁이 아닌 스튜디오 안에서의 인공적 배경 안에서 사진을 찍는 일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스튜디오 촬영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그 배경으로 선택되는 것들이 대체로 서구의 중상층 생활을 모방한 것이라는 점이다. 갈색이나 자주색으로 된 커튼이나 앤틱 가구들로 장식된 거실 혹은 파우더룸을 연상케 하는 배경에서 전통적인 흰색의 웨딩 드레스가 아닌 파티용 아회복 혹은 실내용 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정찬용 재킷이나 연미복을 입은 남성이 등장하는 사진들이 그 예이다.

스튜디오 촬영 사진에서도 역시 야외 촬영의 사진과 마찬가지로의 젠더 이항대립이 나타난다. 즉, 늘 남성은 보호자로, 여성은 보호받는 자로 나타나며, 남성이 위에, 여성은 의자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스튜디오 촬영의 특징은 사랑의 신화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휴식처와 사랑의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신화를 함의한다는 것에 있다. 빅토리아 시기 이래 서구의 중상층에게 있어 격식을 차린 숙녀다음의 이상이 중시되는 사교 공동체가 존재했고, 완벽하게 구색을 갖춘 거실을 갖는 것은 존경의 상징이었으며, 이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주는 집안의 천사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성 역할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조은·이정옥·조주현, 1997, 52~66쪽).

이러한 가정의 신화를 통해 결혼 제도 내의 부부 관계에 대한 젠더 불균

형적인 시각이 내면화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러한 가정의 신화가 서구의 것을 맥락과 상관없이 도려내어 차용하는 키치성의 특질과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튜디오 촬영 사진이 전시되는 한국 부부의 거실은 엔틱 가구로 장식된 빅토리아 시기의 거실이 아닐 것임이 분명하지만, 역사적 맥락과 공간적 맥락과 상관없이 차용된 서구 중상층의 이미지는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며 차별화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신분 질서를 상징적으로 위반하려는 욕망의 발로에서 서구의 것을 차용한 키치성의 결과로, 전통과 근대 사이에서 중층적으로 결정된 한국 핵가족제도 내의 젠더 불평등 관계는 강화되어 결혼 내의 성역할 분업과 완벽한 아내와 어머니를 둔 가정의 신화를 영구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 5> 스튜디오 촬영 이미지의 신화 구조

이차 기표		이차 기의: 안정된 가정을 이룬 남녀	신화: 가정의 이상화

사진이란,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기록이 아니라, 사실의 구성이고, 우리 사회의 신화를 담고 있는 텍스트이다. 신화는 신화 자체를 자연화(naturalization)한다. 바르트는 역사를 자연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신화의 원리라고 밝힌다. 이 원리에 의해서 신화가 품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하나의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호론적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귀납적 체제로서 신화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처럼 신화는 신화 소비자로 하여금 신화의 기표에 의해서 신화의 기의(의도)를 이성화하도록 유도한다(김경동, 1994, 236쪽).

## 7. 결론

결혼식 의례는 현대적 변형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비록 지배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최근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힘입어 결혼하는 커플들의 의식이 변화하면서 양성평등을 조금이라도 구현할 수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식 의례들에 가감되는 요소들이 왜, 어떤 맥락에서 가감되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통시적인 분석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변형과 강화와 관련되어 분석될 때 결혼의 구조와 사랑의 각본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결혼식 의례에 대한 본 연구의 공시적 접근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적인 양식으로 간주되는 현대 한국의 결혼식 절차를 기호학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우리 사회의 결혼의 핵심적인 특징은 그것이 매우 복잡적이며 불균질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은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공간적으로는 서구와 우리 전통적 요소, 그리고 변형된 모습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결혼은 그것을 둘러싼 상반된 담론들, 즉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라는 이야기나 결혼은 ‘연애와 다른 현실’이라는 이야기의 측면들이 모두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결혼식 자체는 서구에서 들어온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함이나 폐백 등 전통의 영역에서는 전통의 관계와 가치들이 그대로 고수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시적 영역에서는 서구 근대의 산물인 낭만적 사랑의 환상 등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유교적 가치에 근거한 담론들이 끈질기게 고수된다. 이는 전통적 결혼이 가정하고 있는 결혼의 각본이 낭만적 사랑과 관계가 없는 출산 도구로서의 성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 전시되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는 결혼식에서는 의식 의미와 함축 의미의 구분이 뚜렷이 드러난다. 결혼식 전반을 지배하는 이미지는 ‘사

랑의 완성'으로서의 결혼을 행하기 위한 경건함과 성스러움이다. 즉, 결혼식 자체는 사랑하는 남녀의 성스러운 결합을 보여줄 뿐 '실제의' 결혼이 새로운 권력 관계와 의무의 시작이며, 젠더 불평등의 공간인 가족의 시작 단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신랑 신부의 입장, 성혼 선언, 주례, 신랑 신부의 퇴장 등 결혼식 상징과 절차에 대한 세세한 분석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녹아 있는 젠더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결혼식의 현대적 변형들은 신랑과 신부의 신분을 상징적으로 상승시키는 과시적 장치의 강화를 그 특징으로 한다. 전시적 영역에서도 이러한 점은 드러나지만, 1980년대 이후의 추가된 요소들은 경제적 능력이 신분 상승으로 연결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욕망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더 고급한 것을 소비하면 더 고급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과시 욕구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대의 결혼식에서 낭만적 사랑의 완성이라는 신화의 구현은 보다 더 많이 과시할 수 있는 자본의 유무에 달린 것이다.

이는 수입된 근대를 경험한 식민지적 근대성의 결과이기도 하지만(조혜정, 1996) 동시에 야외 촬영이나 스튜디오 촬영에서 드러나듯 서구적인 낭만적 사랑과 가정의 이상화와 유교적 성 역할 통념을 결부시켜 결혼의 역사성을 탈각시키고 자연화하는 역할을 한다. 변형의 양상들은 전시적 영역에서의 서구적 결혼식 의례의 절차들이 담지한 낭만적 사랑과 가정의 신화를 더욱 정교하고 강화된 형태로 나타내고, 비전시적 영역에서조차 신랑 신부의 사랑의 순간을 연출함으로 하여 낭만적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다. 결혼의 신화는 성 역할의 통념과 가정의 이상화가 자연스러우며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신화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동시에 결혼에 속해 있는 모든 사실들을 정당화하며,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면서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속삭이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갈홍·이영준 (1993). 결혼 사진은 누구를 찍고 있는가: 결혼 사진의 신화와 상징. 현실문화연구 편.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서울: 현실문화연구, 225~244.
- 강선미 (1999). 한국 혼인의례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동 (1994). 『기호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경신·이선미 (1998). 미혼남녀의 결혼관에 나타난 결혼 이데올로기. 『한국가정과학회지』, 제1집 1호, 27~44.
- 김소연 (1994). 미적, 미 외적 현상으로서의 키치, 그 가치평가를 위한 소론. 『미학 예술학 연구』, 3/4 합본호, 23~33.
- 김영란 (2004). 젠더화된 사랑—낭만적 사랑,모성애—과 보살핌노동: 여성복지정책적 함의. 『사회복지정책』, 18호, 199~222.
- 김주희 (2003). 일제 후반기 결혼 예식과 혼수에 대한 사회사적 고찰. 『가족과 문화』, 제15집, 87~110.
- 김혜경·정진성 (2001). 핵가족 논의와 식민지적 근대성. 『한국사회학』, 제35집 4호, 213~244.
- 김현미 (2001). 결혼 의례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근대성. 『가족과 문화』, 제13집 1호, 163~169.
- 노길명·정태환·김용렬·서용석 (1998). 『문화인류학의 이해』. 서울: 일신사.
- 또하나의 문화 (편) (1991). 『새로 쓰는 사랑이야기』, 제7호, 서울: 또문.
- 박명진 (1989a). 『비판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성과와 그 쟁점』. 서울: 서강대언론문화연구소.
- \_\_\_\_\_ (1989b).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서울: 나남.
- \_\_\_\_\_ (1995). 기호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 『기호학 연구』, 제1집, 151~169.
- 박혜인 (1991). 한국 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이효재 외 (1991).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문, 17~74.
- 배영기·손남숙 (1995). 『결혼문화와 예절』. 서울: 학문사.
- 송도영 (1995). 의례공간 소비의 키치화 : 예식장. 『한국문화인류학』, 제28

호, 319~350.

- 신수진 (2002). 한국가족 연구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위한 소고. 『한국가족 관계학회지』, 제7집 2호, 21~41.
- 안정남 (1991). 현대 결혼 의례의 의미. 이효재 외 (1991).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혼인』. 서울: 또문, 171~198.
- 이박혜경 (1996). 성평등의 신화와 불평등의 현실 : 사랑이 우리를 평등하게 하리라?. 『여성과 사회』, 제9호, 80~93.
- 이배용 (1999). 개화기 일제시기 결혼관의 변화와 여성의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214~245.
- 이순자 (1995). 우리나라 전통 혼례와 현대 혼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3집 1호, 157~190.
- 이재경 (1995). 정의의 관점에서 본 가족. 『한국여성학』, 제11호, 47~73.
- 이지연·신수진 (2004). 한국 대중가요에 나타난 낭만적 사랑.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9집 1호, 25~55.
- 임택진 (1991). 『기독교 가정 의례 지침』.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 장필화 (1991). 성, 사랑, 결혼에서 주인되기 — 통념과 규범의 비판. 또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성 이야기』. 서울: 또문, 42~57.
- 장필화 (1996). 아시아의 가부장제와 공사 영역 연구의 의미. 『여성학논집』, 제13집, 321~332.
- 장현섭 (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하고 있는가. 『한국근현대가족의 재조명』. 서울: 문학과지성사, 42~80.
- 조은·이정옥·조주현 (1997). 『근대 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조혜정 (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 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제2호, 136~206.
- \_\_\_\_\_ (1988).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지성사
- \_\_\_\_\_ (1991). 결혼, 사랑, 그리고 성. 또하나의 문화 (편). 『새로 쓰는 사랑 이야기』. 서울: 또문, 23~44.
- \_\_\_\_\_ (1996). 남자 중심 공화국의 결혼 이야기. 『새로 쓰는 결혼 이야기 2』. 서울: 또문, 305~337.
- 하주영 (2002). 가족의 성별 분업은 어떻게 해제가능한가. 『철학과 현실』, 제53권, 161~171.



- 함인희 (2000). 한국가족의 여성학적 재구성: 페미니즘 가족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성찰. 『동덕여성연구』, 제5집, 39~57.
- 현실문화연구 편(1993). 『결혼이라는 이데올로기』. 서울: 현실문화연구
- Barrett, M. & McIntoch, M. (1982). *The Anti-Social Family*. 김혜경 옮김 (1994). 『가족은 반사회적인가』. 서울: 여성사
- Barthes, Roland (1972). *Mythologies*. 정현 옮김 (1995). 『신화론』. 서울: 현대미학사.
- \_\_\_\_\_ (1990). *The fashion System*.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1998). 『모드의 체계』. 서울: 동문선.
- Baudrillard, J. (1970). *La Societe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이상률 옮김 (1991).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서울: 문예출판사
- Bell, V. (1998). *Taking Her Hand: Becoming, Time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White Wedding*. *Cultural Values*, 2(4), 463~484.
- Calinescu, Matei (1987). *Five Faces of Modernity: Modernism, Avant-garde, Decadence, Kitsch, Postmodernism*. 이영욱 외 옮김 (1993). 『모더니티의 다섯 얼굴』. 서울: 시각과 언어.
- Duby, Georges (1981). *Le Chevalier, la Femme et le prêtre : le Mariage dans la France Feodale*. 최애리 옮김 (1999). 『중세의 결혼 : 기사, 여성, 성직자』. 서울: 새물결.
- Fiske, John (1982).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강태완 외 옮김 (1997). 『문화커뮤니케이션론』. 서울: 한뜻.
- Fiske, John & Hartley, John (1978). *Reading Television*. 이익성 외 옮김 (1994). 『TV 읽기』. 서울 : 현대미학사.
- Giddens, A. (1992).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황정미 옮김 (1996).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 Gittins, Diana (1993). *The Family in Question: Changing Households and Familiar Ideologies*. 안호용 외 옮김 (1997). 『가족은 없다』. 서울: 일신사.
- Gottdiener, M. (1995). *Postmodern Semiotics : Material Culture and The Forms of Postmodern Life*. Oxford: Blackwell.

- Goldstein-Gidoni, O. (2000). The Production of Tradition and Culture in the Japanese Wedding Enterprise. *Ethnos*, 65(1), 33~55.
- \_\_\_\_\_ (2001). Hybridity and Distinctions in Japanese Contemporary Commercial Wedding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4(1), 21~38.
- Hall, S. (1997). The Work of Representation. Hall, S.(ed.). *Representation : Cultural Representations and Signifying Practices*. London ;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 Ingraham, C. (1999). *White Weddings: Romancing Heterosexuality in Popular Culture*. New York & London: Routledge.
- Kalmijn, Matthijs (2004). Marriage Rituals as Reinforcers of Role Transitions: An Analysis of Wedding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3), 582~595.
- Kendall, L. (1996). *Getting married in Korea : of Gender, Morality, and Moderni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vi-Strauss, Claude (1969).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 Boston : Beacon Press.
- Lewis, Charles (1997). Hegemony in the Ideal: Wedding photography, Consumerism, and Patriarchy. *Women's Studies in Communication*, 20(2), 167~188.
- Moles, Abraham (1972). *Psychologie des Kitsches*. 엄광현 옮김 (1994). 『키치란 무엇인가』. 서울: 시각과 언어.
- Storkey, A. (1996). *Marriage and its Modern Crisis : Repairing Married Life*. Cox & Wyman.
- Thorne, Barrie & Yalom, Marilyn (1992). *Rethinking the Family : Some Feminist Questions*. 권오주 외 옮김 (2003).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서울: 한울.
- Tomaskovic-Devey, Barbara (2001). Book Reviews: White Weddings : Romancing Heterosexuality in Popular Culture. *Contemporary Sociology*, 30(4), 375~376.

(최초 투고 2004.12.01., 최종원고 제출 2005.01.05.)

## Semiotic Approach to the Korean Wedding Ceremony Myth of Romantic Love and Gender Role Ideology

Soo-Ah Kim

Candidate for the Ph.D. a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Yeon Lee

M.A. at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wedding ceremony. It was considered as important social text containing cultural codes of Korean society related gender system. Using the concepts of 'Myths', introduced by Barthes, this study analysed every procedure of wedding ceremony prevailed contemporary Korea. Romantic Love, creation of the ideology system of Western bourgeois and peculiar Confucian ideas about gender structure in Korean patriarchy system are both important frames determined wedding culture in Korea society. Thus this study divided wedding ceremony into displaying sphere and non-displaying sphere. Then, displaying sphere was framed by myth of romantic love, but non-displaying sphere was framed by traditional Confucian ideas.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temporary wedding ceremony has the nature of kitsch, related the radical change of Korean class structure, also it worked as myth covered up the inequality of present gender system.

**Keywords:** Wedding Ceremony, Myth, Romantic Love, Gender Role Ideology, Kitsch